

유아의 자유선택활동과 놀이 인원수 제한규칙

이 유 정¹ 원 계 선²

Young Children's Free Choice Activities and a Play Rule Restricting the Number of Players

Lee, Eu Jung¹ Won, Kye Son²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선택활동 시 놀이 인원수 제한규칙에 따른 유아의 놀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자유선택활동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참여자는 사립 유치원 4세 학급 유아 25명과 담임교사와 공동연구자인 도움교수였다. 2014년 7월부터 10월 까지 유아 관찰, 유아 인터뷰, 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영역 선택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간의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었으며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 제한, 사회정서발달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자유선택 행동 저해 등의 역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규칙의 역기능을 인식한 연구자는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함으로써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 공간·놀이·갈등 조절에서 유아의 자율성이 증진되었으며, 자유선택활동 시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자유선택활동의 다양한 제한규칙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규칙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자유선택활동, 제한규칙, 제한규칙 해제, 역기능

¹ 제1저자: 새순유치원 교사

² 교신저자: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gswon3@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에게는 자기표현의 권리가 있으며(Butler, 2012), 유아에게 놀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수단이다(Landreth, 1991).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일과활동으로써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아의 교육에서 ‘자유’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육 활동 과정에서 구속과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행위자의 행동, 의지, 원망 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이다(반채익, 2005). 유아교육 기관에서 자유선택활동은 일과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 즉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 환경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자유선택활동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미선, 2012). 결국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자유선택활동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두 가지 유형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유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구속과 제한이 최소화된 자유선택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선택활동이 유아에게 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3년차 유치원 교사인 연구자 개선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자유선택활동을 운영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자유선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한과 구속이 많은 자유선택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교실은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놀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한다. 그러나 유아들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놀이하다보면 협소한 공간과 한정된 놀잇감 때문에 유아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잦아 놀이가 방해되므로 교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간적 밀도와 사회적 밀도를 고려하여 흥미영역 별 최대 놀이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운영한다(원계선, 박서연, 장수지, 정유나, 윤미영, 이지연, 아하나, 한아녕, 2013; 윤은영, 이정수, 2008; 이수윤, 2015). 위수경(2007) 역시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놀이규칙 운영 덕분에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고, 또래와의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선교사의 교실에서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인원수를 제한하며 이름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선교사가 처음으로 인원수 제한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초임교사 시절 선임교사 교실에서는 모두 이름표를 통한 흥미영역 별 인원수 제한규칙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를 본 개선교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은 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유아들이 놀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유아들이 안전과 갈등문제를 줄이고 다른 영역과의 균형, 유아들이 자신이 계획한 놀이를 인식하여 실행하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아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교사가 흥미영역별 놀이의 활성화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인원수 제한규칙을 교사 3년차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도 있었는데 교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개선교사는 입학하기 전부터 미리 흥미영역에 따라 적정 인원수를 정하였고 교사가 만든 규칙을 유아가 지키도록 지도하였다. 처음에는 유아들이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 평화롭게 놀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아들 개인적으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였고 유아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여 진정한 자유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인원수에 대한 규칙으로 인해 몇몇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놀이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영역의 주변을 맴돌며 배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또 유아가 계획하지 않은 놀이를 하며 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흥미영역은 유아들이 먼저 이름표를 걸기 위해 놀이 시작 전부터 서로 눈치를 보며 친구를 밀치는 등 과도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아들 간의 관계와 안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유선택활동은 유아가 개별적인 흥미·욕구 및 발달수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간을 말하며(엄정애, 2009), 유아들에게 놀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간으로 유아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배경화, 2011)이라고 하였으나 개선교사의 교실에서는 이런 자유선택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개선교사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다. 많은 유아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놀이계획에 준하여 놀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인원수로 인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무시하고 놀이하는 유아에 대한 지도로 갈등을 하고 있다(윤향미, 장영희, 2013; 이소윤, 2015). 개선교사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급 내에 펼쳐지는 문제점을 보며 ‘교사가 정한 인원 수 제한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자유선택활동 운영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규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절감하였다. 교사가 미리 정한 규칙만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놀이에 참여하며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선택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왔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목적, 가치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서민희, 안선희, 2001; 유지현, 2004), 자유놀이 시간 운영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연구(김수정, 홍용희, 2004; 서현아, 권말순, 2007; 엄나은, 서동미, 2015; 윤은영, 이정수, 2008; 이해원, 2015), 자유놀이 시간 유아 행동에 대한 연구(곽향림, 2012; 권미나, 엄정애, 2011; 김경철, 이병비, 2001; 나은숙, 한수정, 2001), 자유놀이시간 유아의 흥미와 선택에 관한 연구(나은숙, 양옥승, 2007; 양옥승, 2003), 자유놀이에 대한 유아의 관점 연구(나은숙, 2005; 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놀이규칙에 대한 연구로는 놀이규칙 안내와 위반 시 지도전략에 관한 연구(민혜원, 2001; 박혜경, 2013)가 있다. 그러나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제한규칙 운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유아교육기관 자유놀이의 제한규칙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원계선 등, 2013)에 대한 연구와 자유로운 놀이의 제한과 자유의 실현(추수진, 2008), 자유선택활동 규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소윤, 2015); 자유선택활동 시 흥미영역 선택 이름표 사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생각과 유아의 반응(김미선, 2012)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자유선택활동 시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와 자유선택활동 이름표를 사용하는 이유와 교사의 인식, 제한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놀이를 제한하는 규칙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으며, 다른 효율

적인 방법을 연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미라와 이연선(2006) 역시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흥미영역별 환경구성이 사실상 닫힌 공간을 의미하고 유아에게 제한된 공간을 계속 활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놀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개선교사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존중하면서 인원수 제한규칙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원수 제한규칙 해제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의 염려와는 다르게 제한규칙 없이도 유아들의 놀이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이 유아들의 자유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했을 때 유아 놀이의 변화를 연구해봄으로써 진정한 자유놀이를 위한 제한규칙의 효율적 적용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 시 유아들의 놀이와 규칙 해제 시 유아들의 놀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자유선택활동 시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 시 유아의 놀이는 어떠한가?
2. 자유선택활동 시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하였을 때 유아들의 놀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J시에 위치한 S유치원의 만 4세 자유반 개선교사와 25명의 유아이다. 자유반은 만 4세 남아 14명, 여아 11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일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교사와 활동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방과 후 과정 교사와 활동한다.

연구 참여자인 자유반 개선교사는 교육과정 교사로 경력 3년차이며 3년째 만 4세를 담당하고 있다. 3년간 만 4세 유아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만 4세 유아들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유선택활동 시 만 4세 유아들이 제한규칙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 유사함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유아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지키기 힘들어 하는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의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 유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규칙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어 인원수 제한규칙의 해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도움교수는 유아교육과 교수로 과거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약 18년간 교사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참여관찰과 교사의 반성적 저널, 유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자유선택활동과 평가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

으로 생기는 유아들의 갈등과 놀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을 하였고, 인원수 제한규칙 해제 후에는 유아들의 놀이 변화에 초점을 두어 관찰하였다. 관찰된 유아들의 말, 행동, 사건은 간단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일과가 끝난 후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화 하였다.

반성적 저널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인원수 제한규칙과 관련한 유아의 놀이를 교사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참여 관찰한 내용에 대한 생각, 연구에 대한 고민, 의문, 반성, 깨달음 등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유아 인터뷰는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느끼는 갈등, 불만과 규칙이 해제된 후 놀이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전체 유아에게 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녹음하여 이후 컴퓨터 작업으로 기록화 하였다. 집단 인터뷰 시 핵심 질문은 “자유놀이가 영역에서 한 번에 놀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좋았니?”, “좋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좋지 않았니?”,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왜 놀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했을까?”, “사람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놀이할 사람 수를 정하지 않고 놀이해 보니까 어땠니?”, “좋은 점은 무엇이었니?”,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니?” 등이었다.

3. 자료 분석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관련 문헌 자료와 관찰 및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가 내포하는 속성 및 개념적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귀납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 수집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도움교수와 관찰 방법, 자료 정리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컴퓨터로 문서 정리하고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 코딩을 통해 의미 있는 어휘, 행동, 유형, 사건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자유선택활동 시간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에 따른 유아들의 놀이 경험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Creswell, 2010).

자유선택활동시간이 평가 시간에 교사가 아쉬웠던 점과 속상했었던 점에 대해 물자 연수가 “저요 오늘요 미술이랄 언어랄 쌀기하고 싶었는데요 미술이랄 언어는 했는데 쌀기는 남자친구들이 다해서 못했어요”라고 한다. “쌀기놀이를 하지 못해 속상했구나?” 교사의 말에 “맨날 남자 친구들만 쌀기해요”라고 답한다.

BO 0825
놀이계획과
놀이실행의
불일치에 대한
유아의 불만

(그림1) 자료 코딩 예

먼저 자료 코딩을 위하여 자료유형과 자료수집 장소, 자료수집 시기를 나타내는 약어를 정하였고 문서로 만들어진 모든 자료를 읽으며 자유선택활동 중 인원수 제한규칙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말과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펜으로 밑줄을 긋고 옆에 핵심어를 [그림1]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코딩된 의미의 총수는 72개였다. 연구자들은 단위 의미들을 범주화하고 조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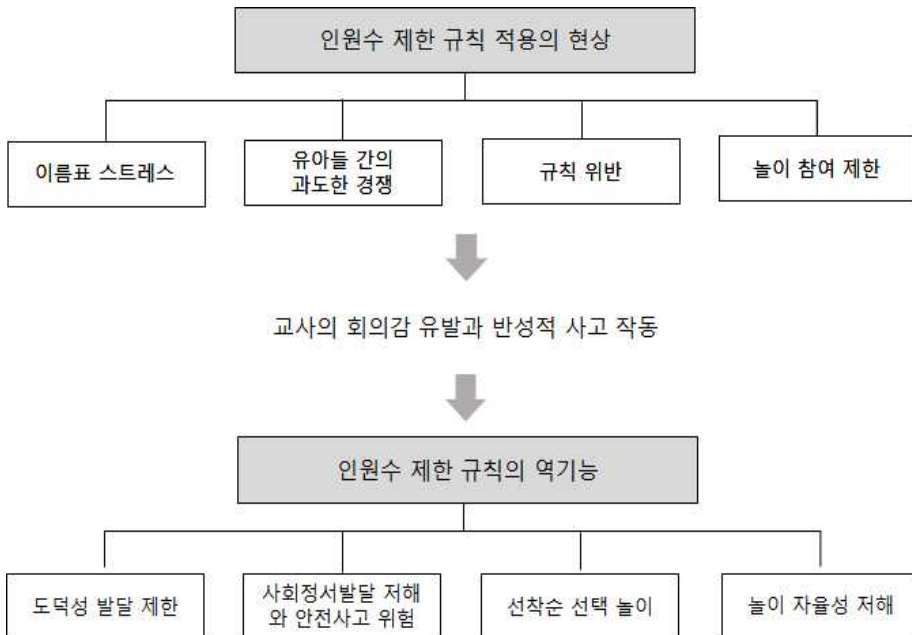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유선택활동 시 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으로 발생하는 현상들과 반복적인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의 역기능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 해제에 따른 유아들의 반응과 교사의 역할수행도 분석할 수 있었다.

유아 행동 관찰 기록, 교사의 반성적 저널, 유아 인터뷰 등 자료 유형을 다양화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전 과정을 공동연구자가 함께 하는 삼각검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질적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에 따른 유아의 놀이

인원수 제한규칙의 반복적 적용은 유아들에게 이름표 스트레스, 과도한 경쟁, 규칙위반, 놀이 참여 제한의 현상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도덕성 발달 제한, 사회정서발달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자유선택이 아닌 선착순 선택 놀이로 인식하기, 놀이 자율성 저해의 역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으로 나타난 현상과 역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의 현상과 역기능

1)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 시의 놀이 현상

(1) 이름표 스트레스

인원수 제한규칙의 적용을 위해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 이름표를 사용하였는데, 놀이하는 영역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이름표를 영역 표지판에 붙여야 놀이를 실행할 수 있었다. 교실의 흥미영역 표지판에는 이름표를 걸 수 있는 고리가 흥미영역별로 4~6개까지 정해져 있었고, 다른 유아들이 이름표를 걸어서 더 이상 빈 고리가 없으면 유아는 해당 영역에서 놀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아는 빈 고리가 있는 영역의 놀이를 해야 하고, 다른 유아가 영역에서 나와 이름표를 떼어내면 그 곳에 이름표를 걸고서 놀이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들로 하여금 이름표가 고리에 걸려 있어야만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불안감과 불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미술영역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하던 중 승욱이가 미술영역 표지판을 보더니 준성에게 “너 왜 이름표 안 붙였는데 여기서 노냐?”라고 한다. 준성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름표 잃어버려서...”라고 하자 승욱이가 “그럼 너 놀이 못해. 여기 이름표 걸고 해야 돼”라고 한다. 준성이 “선생님이 이름표 붙이지 않고 해도 된다고 했”라고 하니 “그래도 너 못해. 선생님이 이름표 붙이고 놀이하라고 했네.”라고 승욱이가 말한다. 승욱이가 계속 놀이를 못한다고 하자 준성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후로 준성을 미술영역에 이름표를 붙이려는 친구들을 살피며 만들기를 한다.

(2014. 7. 21. 자유놀이관찰)

이름표를 잃어버린 유아들의 경우 영역에 이름표를 걸지 않으면 놀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놀이를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이름표를 찾는다. 이름표를 걸지 않고 놀이할 경우에는 다른 유아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며, 유아는 ‘다른 친구가 이름표를 걸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계속 다른 친구들의 행동에 눈치를 보며 놀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놀이하는 내내 불안함을 느낀다.

(2) 유아들 간의 과도한 경쟁

영역 선택 이름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흥미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함으로써 영역 내 공간적 밀도와 사회적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김미선, 2012). 하지만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유아들은 놀이하기 원하는 영역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특히 자유반 유아들이 선호하는 미술영역, 쌓기 놀이 영역은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지원이를 포함한 4명의 유아가 뛰면서 자유선택활동 계획표를 가지러 간다. 지원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계획표에 체크를 한 후 계획표를 정리하러 갈 때도 뛰면서 간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표를 가지고 쌓기 놀이 영역에 뛰면서 가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동언이의 머리와 지원이의 이마가 부딪힌다. 두 친구는 부딪힌 부위를 두 손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 멈춰선다. 지원이는 인상을 찌푸리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2014. 7. 17. 자유놀이관찰)

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흥미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경쟁은 이름표를 영역 표지판에 걸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친구보다 먼저 이름표를 걸어야만 그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은 교실에서 뛰면 안 된다는 규칙을 알고 있지만 원하는 놀이를 위해 자유선택활동 시작 때와 중간 이동 시 뛰어다닌다. 이 때 유아들은 서로 부딪히며 충돌하기도 하여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대경이와 민준이는 서로 어깨를 밀치며 한 자리 남은 고리에 자신의 이름표를 걸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한다. 대경이가 “내가 먼저 왔네~”라며 힘을 주어 팔꿈치로 민준이를 밀쳐낸다. 민준이는 매트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대경이는 이름표를 고리에 건다.

(2014. 8. 20. 자유놀이관찰)

경쟁은 단순히 교실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를 걸기 위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친구가 넘어져서 울어도 영역 표지판에 자신의 이름표를 먼저 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권이 쌓기놀이영역 표지판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표를 걸고 자신의 이름표를 걸었던 옆 고리를 손으로 막는다.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름표를 걸려고 하자 “아, 여기는 안 돼! 한준영! 빨리 와!”라고 한다. 이름표를 붙이려는 다른 친구들을 비키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낸다.

(2014. 7. 29. 자유놀이관찰)

또한 유아들은 자신이 함께 놀이하고 싶은 친구의 자리를 맡아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먼저 놀이를 시작한 유아가 자신보다 늦게 놀이를 시작하는 유아를 위해 영역 표지판 고리를 손으로 가리는 것이다. 재권이는 지난주부터 준영이와 함께 쌓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재권이는 놀이할 기회가 생기자 자신의 이름표를 걸고 난 후 다른 친구들이 이름표를 걸지 못하게 손으로 고리를 막고 준영이를 재촉하였다.

이렇듯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흥미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달리기, 서로 밀쳐내기, 친구 자리 맡아두기 등의 모습을 보이며 반 친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3) 규칙 위반

자신이 놀이하고 싶은 영역에 이름표를 걸 자리가 없을 경우, 일부 유아들은 영역 표지판에 걸려있는 다른 친구의 이름표를 몰래 떼고 자신의 이름표를 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서연이가 쌓기 영역 표지판에 친구들의 이름표가 다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걸려있던 ‘한준영’ 이름표를 떼서 교구장 뒤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건다. 그리고는 “와~ 나 쌓기 해야지!”라고 하며 쌓기 놀이 영역에 앉는다.

(2014. 7. 14. 자유놀이관찰)

진서가 미술영역 표지판에서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서 들고 역할영역으로 이동한다. 역할영역 표지판 고리에 친구들의 이름이 모두 걸린 것을 보고는 역할영역에서 놀이하는 친구들을 바라본

다. 역할영역 친구들이 병원놀이 하는 모습을 보며 웃다가 교구장이 흔들리면서 고리에서 친구의 이름표가 떨어진 것을 보고는 떨어진 자리에 재빨리 자신의 이름표를 걸고 “나도 할래!”라고 소리친다. 하은이가 “할 수 없어. 꼭 찾아”라고 하자 “아니, 여기 내 이름표 있어”라고 하며 역할영역 표지판을 가리킨다.

(중략)

유아들이 준원의 이름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허준원, 너 이름표 없네. 너 나가야돼.”라고 준영이가 말한다. 준원은 “아니 나 이름표 걸었어~”라고 하나 친구들이 준원이보고 나가라며 한 마디씩 한다. 이를 진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준원은 울음을 터뜨린다.

(2014. 7. 14. 자유놀이관찰)

위의 두 사례에서 서언이는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하려고 일부러 친구의 이름표를 떼고 자신의 이름표를 건 후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서는 서언이처럼 일부러 친구의 이름표를 떼 것은 아니지만 이름표가 고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는 떨어진 이름표의 친구가 역할 놀이 영역에서 놀이하고 있음을 알고도 빈 자리에 자신의 이름표를 걸고 놀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흥미영역 내 정해진 인원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이름표를 걸 자리가 없을 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 놀이 참여 제한

자유선택활동은 교사가 준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 관심에 따라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다(김미선, 2012). 그러나 흥미영역별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칙은 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대경이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미술영역 표지판 앞에 앉아 있다. 교사가 왜 거기 앉아 있다고 묻자 “저 미술 하고 싶어서 친구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한다. 교사가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면서 기다리는 건 어떠냐고 묻자, “저 쌓기랑 역할이랑 미술 체크했는데 다 꼭 차 있어요.”라고 한다. 교사가 비어있는 영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자 “저는 미술하고 싶은데요. 그냥 기다릴래요.”라고 이야기 한다.

(2014. 7. 1. 자유놀이관찰)

서영이가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언어영역 벽면에 기대선 채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살펴본다. 여자 친구들이 손인형으로 놀이하는 것을 보며 웃는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언어영역 표지판을 살펴보니 이미 모두 이름표가 걸려있는 상태이다. 서영이는 1~2분가량 서 있다가 역할놀이영역에서 큰 소리가 나자 역할놀이영역을 바라본다. 역할놀이 영역으로 다가가 역할놀이 표지판에 이름표가 다 걸려있음을 확인하고는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을 역할놀이영역 교구장 옆에 기대어 바라본다.

(2014. 8. 14. 자유놀이관찰)

흥미영역에 정해진 인원이 모두 찼을 경우,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하려고 해당 영역 앞에서 기다리거나, 다른 흥미영역 놀이를 하며 기다리거나 교실을 배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위 사례에서 대경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영역이 모두 꼭 차있어서 할 수 없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영역 앞에 앉아 친구들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서영이는 관심이 있는 영역에 친구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교실을 이리저리 배회하며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인원수 제한규칙의 역기능

(1) 도덕성 발달 제한

김미선(2012)은 자유선택활동 시 교사가 흥미영역 선택 이음표를 통해 흥미영역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흥미영역의 인원수 제한, 놀이 계획의 인식 및 실행, 놀이의 활성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가 유아들을 위해 인원수 제한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급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원수 제한규칙에 유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자유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선교사 또한 자유선택활동 시간 운영 시 유아들의 신체적·사회적 갈등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기 초부터 인원수 제한규칙을 지키도록 제시하였다. 유아들이 인원수 제한규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유아들과 집단 인터뷰를 하던 중 우연히 유아들의 규칙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유아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이 교사로부터 나오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을 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친구들이 많네. 그럼 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민준 : 그건 선생님이 친구들 다 딱 차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재권 : 이음표 붙여서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지.

(2014. 9. 15. 유아인터뷰)

민준이의 이야기처럼 유아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을 교사에 의해 강요된 규칙으로 인식하였고, 이 규칙 존재의 이유와 필요성보다는 교실의 권위자인 교사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르면 자유반 유아들은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속한다. 타율적 도덕성은 이후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사는 규칙이 절대적인 권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 구성원의 합의 하에 수정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즉, 규칙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구성원들의 논의와 동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유반에서는 구성원인 유아들의 의사 반영이나 동의 없이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만든 인원수 제한규칙을 유아들에게 지키라며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규칙에 대한 유아의 발언권이나 참여권이 전혀 존중되지 못하였다.

(2) 사회정서발달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의 현상에서 살펴봤듯이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한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강해졌고 친구를 경쟁상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더 큰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

친구보다 빨리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은 영역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서 유아들이 뛰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면 심심치 않게 유아들끼리 또는 교구장에 부딪히기도 하고, 뛰다가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전에 대해 몇 번이나 강조해도 경쟁심리가 더 커서 유아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자유선택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긴장되고 걱정된다.

(2014. 7. 17. 반성적 저널)

유아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놀이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고 실행하지 못한 놀이를 갈망하는 정도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친구를 함께 놀이하는 대상이 아닌 ‘친구를 제쳐야만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이게 되어 유아들 간의 경쟁심리가 커져 이것이 신체를 활용한 경쟁으로까지 진행되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14. 9. 22. 반성적 저널)

경쟁의 심화는 교실의 분위기를 위태롭게 만든다. 하고자 하는 영역의 놀이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커질수록 유아들은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교실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달리면서 부딪힘, 넘어짐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교사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유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쉽 없이 경쟁을 하였다. 경쟁적인 교실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한 유아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친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분명 유아들이 불편하지 않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위해 만든 규칙이 오히려 유아들을 다치게 하고 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막는 규칙으로 둔갑하여 놀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14. 8. 12. 반성적 저널)

유아들 간의 갈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유아들이 좀 더 놀이에 몰입하도록 돕기 위해 적용했던 인원수 제한규칙이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야기해 안전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고,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었다.

(3) 선착순 선택 놀이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는 자유선택활동이 거듭되면서 유아들은 흥미영역에 정해진 인원수가 모두 차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작 시 먼저 놀이를 시작하는 것과 이름표를 먼저 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뒤늦게 놀이를 시작하는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먼저 이름표를 붙인 유아들은 놀이를 할 수 있고, 한 발 늦은 유아들은 다른 놀이를 해야 하는데 놀이가 이름표를 붙이는 선착순에 의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갈리게 된다.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자유선택 놀이가 아닌 선착순 놀이로 변질되어버렸다.

(2014. 7. 8. 반성적 저널)

유아들 간에는 ‘영역 표지판에 먼저 이름표를 걸어야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렸고 이는 ‘자유’선택 놀이가 아닌 이름표를 먼저 걸어야 놀이를 할 수 있는 ‘선착순’선택 놀이가 되어버렸다. 즉, 이름표를 활용한 인원수 제한규칙은 자유선택활동의 주요한 용어인 ‘자유선택’을 제한하는 역기능을 유발하였다.

(4) 놀이 자율성 저해

자유선택활동은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수준·흥미·욕구·관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간이다. 배경화(2011)는 유아들에게 놀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간으로 유아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역에 정해진 인원수가 모두 차게 되면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다른 영역에 들어가거나, 교실을 배회해야 한다. 세 가지의 경우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실현하지 못한 유아들의 반응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놀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유아들의 놀이 자율성이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서가 미술영역 책상 옆에서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다가 미술영역을 하고 있는 나경이에게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 나경이가 미술영역 표지판을 확인하고는 “너 하면 안돼. 친구들 이름 다 걸려있어. 친구 나가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 옆에 있던 채권이도 “야~ 너 지금하면 안 돼. 친구들 꼭 차있어”이라고 하자 진서가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나 하고 싶은데…….”하며 눈물을 흘린다.

(2014. 7. 3. 자유놀이관찰)

교사가 정리시간 5분 전임을 알리고 쌓기놀이 영역과 역할놀이 영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한다. 수·조작 영역을 하고 있던 유준이가 놀란 듯 얼굴을 들고 교사를 바라보더니 교사에게 다가온다. “선생님 정리해요?”라고 묻자 교사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유준이가 “저 근데 쌓기놀이 영역 못했는데요.”라고 하자 교사가 “속상했구나. 내일하면 어떨까?”라고 한다. 유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뒤돌아선다.

(2014. 8. 12. 자유놀이관찰)

위의 예에서 진서는 미술영역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유아들의 제지를 받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유준이는 원하는 놀이를 하기 위해 다른 영역을 하며 기다렸지만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놀이를 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껴 슬퍼하였다. 놀이의 자율성에 대한 좌절감은 유아들의 놀이시간 뿐만 아니라 평가시간에도 드러난다. 유아들은 자유선

택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놀이를 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하지만 영역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유아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계획과는 다른 놀이를 하게 된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이 끝나고 평가 시간에 교사가 아쉬웠던 점에 대해 묻자 연수가“저요 오늘요 미술이랑 언어랑 쌓기하고 싶었는데요 미술이랑 언어는 했는데 쌓기는 남자친구들이 다해서 못했어요”라고 한다. “쌓기놀이를 하지 못해 속상했구나?” 교사의 말에 “맨날 남자 친구들만 쌓기해요”라고 답한다.

(2014. 8. 12. 자유놀이평가)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는 유아에게 자신의 자유와 흥미가 존중받지 못한 경험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은 유아들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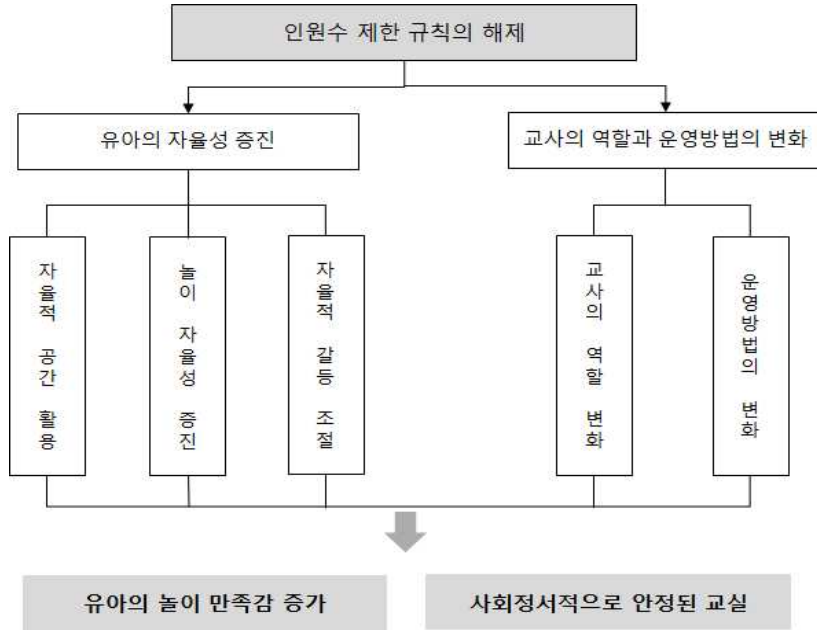
교사 :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게. 혹시 자유선택활동 놀이를 하던 중 너희들 불편했었던 점은 없었니? 아니면 속상했던 점이나, 유준이.
 유준 : 저예요. 그 자유선택활동 할 때 있잖아요. 그 내가 저번에 미술이랑 수·조작이랑 언어를 체크했는데 언어랑 수·조작은 했는데 미술은 못했어요.
 교사 : 왜 하지 못했어?
 유준 : 그 미술 친구들이 안 나와서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미술 친구들이 안 나와서 저는 못했어요. 미술하고 싶었는데 기다렸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교사 : 그랬구나. 하고 싶은 영역을 하지 못해서 기분이 어땠어?
 유준 : 안 좋았어요.
 교사 : 그래, 그럼 수연이도 그런 적이 있니?
 수연 : 저도 저번에 미술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꼭 차있어서 못했어요.
 준원 : 나는 쌓기 하는 거 못해서 나도 속상했어요.
 준성 : 선생님~ 선생님~
 교사 : 응? 준성이
 준성 : 저도 역할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꼭 찻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요.

(2014. 9. 15. 유아집단인터뷰)

위의 유아들과의 면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유아들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가 좌절된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인원수 제한규칙으로 인해 놀이가 제한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인원수 제한규칙 해제에 따른 유아의 놀이

자유선택활동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의 역기능을 깨닫게 된 개선교사는 유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규칙을 해제할 것임을 공지한 후 유아의 놀이 활동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림3]과 같이 인원수 제한규칙 해체 후 자율적 공간 활용, 놀이 자율성 증가, 자율적 갈등 조절 등 유아들의 자율성이 증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법에도 변화가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의 놀이 만족감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교실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림3) 인원수 제한규칙의 해제에 따른 유아의 반응과 교사의 변화

1) 유아의 자율성 증진

(1) 자율적 공간 활용

영역별 인원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유아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역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7~8 명의 유아가 몰려 공간의 부족함으로 유아들이 놀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 이에 유아들은 교사에게 다른 영역 공간 활용을 요청하였다.

수연 : 선생님, 미술영역에 친구들이 다 앉아서 저 앉을 곳이 없어요.
 교사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연 : (교실을 둘러보며 머뭇거리다) 모르겠어요.
 교사 : 미술영역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못 앉는데 어떻게 하면 수연이도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수연 : 음…….(하며 교실을 다시 둘러본다. 그리고는 음률영역 책상을 가리키며) 저기서 해도 되요?
 교사 : 음률영역?
 수연 : 네!(하며 얼굴이 밝아진다)
 교사 : 근데 지금은 음률영역 친구들이 없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수연 : 음... 그때, 미술영역 친구들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미술영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2014. 9. 11. 자유놀이관찰)

교사는 유아의 공간 제한 해제 요청을 수용하였고, 추후 교사와 유아들은 공간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에서만 놀이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하

고 싶은 영역에 친구들이 많아 해당 영역의 공간에서 놀이를 하지 못할 경우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술영역에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비어있던 수·조작영역에서 여자 친구들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유준이와 준성이가 수·조작 게임을 하기 위해 수·조작 영역으로 온다. 수·조작영역 교구장에서 게임 교구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서는데 책상에 여자 친구들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어서 게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지 않자 유준이가 “아, 우리 바닥에서 할까?”라고 한다. “응, 여기가 더 좋지이”라며 준성이가 대답하자 유준이가 “어. 완전 넓어~ 아무도 없어~”하고 웃으며 대집단 매트에 게임 교구를 내려놓는다.

(2014. 9. 11. 자유놀이관찰)

유아들의 자율적인 공간 활용은 유아들 스스로 자신이 편안하게 놀이할 공간을 찾아 이동하거나 때로는 교구장까지 옮기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사는 제한규칙 해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아들의 다양한 공간 활용 능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놀이 자율성 증가

영역별 인원수가 제한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 실현이 좌절되어 속상해하기도 하였고, 일부 유아들은 자신의 놀이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놀이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원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 자유로운 선택과 놀이 실현이 가능하였고 먼저 이름표를 걸어 놀이를 할 수 있는 ‘선착순 놀이’가 아니라 ‘공평한 놀이 기회’를 만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해 교실을 배회하는 유아들이 감소하였다.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놀이를 선택하지 못해 배회하는 유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유아들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 들어가서 놀이하였다. 놀이를 못하게 되었다며 교사에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속상해하거나 유아들끼리 눈치를 보거나 감시하는 일이 사라졌다.

(2014. 9. 4. 반성적 저널)

또한 놀이 계획과 놀이 실행의 일치가 실현되었고, 더 이상 영역별 최대 인원이 모두 차있어서 원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졌고 한 영역에서 놀이한 후 정리를 하고 다른 놀이로 옮기는 영역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계획한 놀이를 스스로 조절하며 놀이하였다.

자유선택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에 준영이가 자신이 한 놀이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교사 : 무슨 놀이를 했나요?

준영 : 언어에서는 ‘이뉘기 대장이야’ 책 읽고, 미술에서는 찰흙으로 치아 만들기 했어요.

교사 : 놀이 할 때 기분은 어땠나요?

준영 : (웃으며) 좋았어요.

교사 : 오늘 계획한 놀이를 모두 하였나요?

준영 : 네. 언어랑 미술 했는데 둘 다 했어요.

교사 : 내가 하고 싶었던 놀이를 모두 다해서 기분이 어떤가요?

준영 : (웃으며) 좋아요.

(2014. 9. 22. 자유놀이평가관찰)

대경이가 쌓기 놀이 영역에서 채권이와 함께 만들었던 에펠탑을 전시하고 나머지 유니트 블록들을 정리한다.

교사 : 대경이 다 놀이했니?

대경 : 네. 이거 전시했어요.

교사 :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대경 : 네. 저 이제 음률영역 갈 거예요.

교사 : 그렇구나.

대경 : 저 오늘 쌓기랑 음률 체크했는데 쌓기 했으니깐 이제 음률영역 가서 어제 했던 거 할 거예요.

(2014. 10. 28. 자유놀이관찰)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하면서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하는 영역이 선호하는 놀이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즉, 남아들은 쌓기 놀이를 많이 할 것이고 여아들은 역할, 미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유아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유아들이 관심을 보여 남아들의 발길이 뜸했던 음률영역에서 남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이 빈번해졌고 거친 남아들에게 경쟁에 밀려 쌓기 놀이를 잘 하지 못했던 여아들도 쌓기 놀이에서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2014. 10. 8. 반성적 저널)

또한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른 놀이를 하다 보니 자유선택활동 시 자신의 놀이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선택한 영역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놀이를 하면서 놀이 시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을 느꼈다. 인원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았던 교사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유아들이 안정되게 놀이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아들이 놀이에 대한 몰입과 방황하는 유아, 눈치 보는 유아, 경쟁하는 유아들이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된 것 같다.

(2014. 9. 22. 반성적 저널)

(3) 자율적 갈등 조절

개선교사는 영역별 인원수 제한의 해제로 유아들 간의 놀이 공간, 놀잇감을 사이에 둔 갈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자유반 유아들은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경이가 유니트 블록이 담긴 바구니를 교구장에서 뺀다. 바구니를 들고는 놀이 자리를 찾는다.

자리가 없자 재권이 옆으로 가서 “비켜줘”라고 이야기 한다.

재권 : (영덩이를 움직여 옆으로 갔으나 바구니를 놓을 틈이 없다)

대경 : 아, 좀 더 옆으로 가줘.

재권 : 자리 없어.

대경 : 난 유니트 블록 할 건데

재권 : 그럼 너 저기(대집단 매트)가서 해.

대경 : 나 여기서 하고 싶은데

재권 : 아 진짜~ 권민준, 김민건 우리 저기(대집단 매트)가서 하자.

민준 : 왜?

재권 : 여기 자리 좁네.

민준 : 그래. 불편할 사람 다 따라와! (하며 불편 상자를 들고 대집단 매트로 간다.)

(2014. 9. 19. 자유놀이관찰)

위의 사례에서 놀이공간이 협소하여 재권이와 대경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유아가 자신이 놀이하고 있는 공간을 친구에게 양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조언을 듣고 명언이가 와플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민준이에게로 간다.

명언 : 친구야, 와플블록 나누어 줄 수 있어?

민준 : 어? (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놀이하던 와플블록들을 쳐다본다.)

명언 : 와플블록 나누어 줄 수 있어?

민준 : (와플블록에 눈을 계속 응시한 채)음... 이건 안되고, 이거 줄게.

민준이는 왼쪽에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둔 와플블록을 내민다.

명언 : (민준이가 내민 와플블록을 받는다.)

승욱 : 나도 이거 줄게.(라고 하며 와플블록 하나를 명언이를 향해 내민다.)

(2014. 10. 10. 자유놀이관찰)

놀잇감이 부족하여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없게 된 명언이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교사는 명언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놀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에게 나누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명언이는 친구에게 요청을 하였고 와플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던 민준이는 자신이 가지고 놀이하는 블록 중 하나를 명언이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모습을 본 승욱이도 명언이에게 블록 하나를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다른 유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권유한 적이 없었으며, 놀잇감을 나누어준 것은 민준이와 승욱이의 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유아들은 놀잇감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나눔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아가 좀 더 편안하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영역 선택 이름표를 사용하여 흥미영역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인원수 제한규칙 해제 시 인기 있는 영역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인한 유아들 간 갈등 발생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밝혔

듯이(김미선, 2012; 이소윤, 2015), 유아들은 인원수의 제한으로 발생한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적·신체적 갈등을 일으켜 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유아의 자발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교사의 개입에 의해 중재·해결되었다. 오히려 제한규칙 해제 후 유아들은 교사의 걱정과는 달리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2)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법의 변화

(1) 교사의 역할 변화

자유선택활동 시 교사의 역할은 놀이지도를 계획하는 역할,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역할, 놀이를 관찰하는 역할, 놀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구분된다(이숙재, 2004). 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이 존재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 중에서 특정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방황하는 유아들에게 다른 놀이를 유도하고 안전을 위해 경쟁하는 유아들을 중재하고 규칙을 강조하여 놀이자로서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감시 또는 통제의 역할에 치우치게 되었다.

하고 싶은 놀이를 못해 방황하거나 고집피우는 유아들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다른 놀이를 강요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할 때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규칙을 어기고 들여보낼 줄 수는 없는 게 모든 유아들에 대한 공평성이 어긋나고 또 규칙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걱정되는 마음,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사로 하여금 더 규칙을 강조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

(2014. 7. 3. 반성적 저널)

교사는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유아들이 놀이를 실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규칙의 역기능으로 인해 인원수 제한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교사는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하였고 규칙을 해제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변화되었다.

인원수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자유선택활동 시 일어나는 유아들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다. 덕분에 방황하던 유아들을 지도하고, 이쯤포 때문에 싸우는 유아들을 중재하느라 정신없었던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각 영역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함께 놀이 하며 유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교사의 변화를 가장 반가워하는 것은 유아들이다.

(2014. 9. 15. 반성적 저널)

교사의 변화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유아들이었다.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 놀이유도와 갈등의 중재보다는 유아들의 놀이에 참여하여 상호작용 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개입과 유아 관찰이 원활해져 유아들이 놀이에 필요한 것을 적시에 지원해주기도 하고, 놀이를 확장시켜줄 수 있었다.

(2) 자유선택활동 운영방법의 변화

개선교사는 학기 초부터 유아들에게 자유선택활동 시 필요한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통제하면서 운영하였다. 즉, 유아가 자유선택활동을 하며 스스로 필요한 규칙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 가기 보다는 교사가 자유선택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유아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만들어 놓은 규칙의 틀 안에서 놀이할 것을 지도하였다. 규칙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때 규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이다(김수연, 2009; 원계선 등, 2013; 이소윤, 2015). 자유반에서는 인원수 제한규칙 제정 과정에서 유아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자유선택활동 시 규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도 유익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원수 제한규칙의 해제 후 개선교사는 유아들이 놀이 중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이를 유아들과의 토의를 통해 유아들 스스로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조정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사 : 애들아, 어제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쌓기 놀이 영역에 전시하는 작품이 많아서 놀이할 수 있는 블록이 없고 전시한 작품들을 놓을 곳이 없다고 선생님께 이야기 했었어.
- 유준 : 맞아요. 어 저 어제 쌓기 놀이 영역 하려고 하니깐 물편 통에 물편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 만들어서 전시해갖고
- 교사 :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 대경 : 그 친구들이 여러 개 전시하니깐 그래요. 너무 많아서요.
- 교사 : 그러네. 전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전시할 공간도 부족하구나.
- 민준 : 쌓기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 전시해요.
- 재권 : 안 돼. 그럼 친구들이 다 만져
- 교사 : 계속 전시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놀이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반에는 모든 친구들이 전시를 하고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블록이 많지 않아요. 둘 다 같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수연 : 전시하는 친구가 필요 없는 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 유준 : 한 개만 하면 되잖아요.
- 교사 : 수연이는 친구들이 함께 나눠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고, 유준이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하자고 이야기 했어. 또 다른 생각?
- 하연 : 서로 같이 양보하면서 써요.
- 명언 : 돌아가면서 해요.
- 교사 : 무엇을 돌아가면서 할까?
- 명언 : 장난감 돌아가면서 해요.
- 유준 : 아~ 전시하는 거를 한 개씩해서 돌아가면서 전시해요.

(2014. 10. 22. 이야기 나누기 관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유아들은 무분별한 작품 전시로 인해 놀이감의 부족을 느꼈고 전시 공간의 부족함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교사는 유아들 전체에게 이야기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토의를 하며 필요한 규칙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교사가 만든 규칙을 지킬 것을 강

요할 때보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고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도 많아졌다. 또한 규칙을 실행하며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고 다시 토의를 통해 수정해나감으로써 규칙이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을 배워나가게 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자유반 개선교사인 공동연구자가 흥미영역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하였을 때 유아의 놀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선교사는 인원수 제한규칙을 적용할 때의 유아 반응과 해제 하였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유선택활동 시 흥미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 적용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을 위해 사용되는 이름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름표가 있어야만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특히 이름표를 분실할 경우 놀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껴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둘째, 유아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났다. 먼저 영역을 선택하여 놀이하기 위해 자유선택활동 시작 시 달리는 경우가 빈번했고, 서로 밀치고, 자리를 맡아두는 등의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다.

셋째,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위해 규칙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놀이하고 싶은 영역에 제한된 인원수가 모두 들어가 있을 경우 유아들은 영역 표지판에 붙어있는 친구의 이름표를 몰래 떼어 자신의 이름표를 거는 행동을 하였다.

넷째, 인원수 제한규칙으로 인해 유아들은 놀이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영역에 친구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 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없을 때, 유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다른 놀이를 하며 기다리기도 하였다. 일부는 교실을 배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행연구(윤향미, 장영희, 2013; 이소운, 2015) 결과와 마찬가지로 흥미영역의 제한된 인원수로 인해 유아들은 사전에 계획한 영역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졌다.

자유선택활동 시 인원수에 대한 제한규칙이 반복 적용되는 동안 위와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개선교사는 이를 관찰하면서 교사가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규칙의 기능과 다른 역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원수 제한규칙은 반 구성원인 유아들과의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만4세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하였다. 유아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을 교사로부터 나오는 규칙으로 인식하였고 교사는 유아들에게 규칙의 준수를 강요하고 있었다.

둘째, 인원수 제한규칙 때문에 생긴 경쟁적인 교실의 분위기는 유아들의 사회정서발달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였다. 자유선택활동 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 유아들 간

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친구를 경쟁상대로 생각하며 친구보다 먼저 이름표를 걸기 위해 달리기, 친구 밀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견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쟁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을 적용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갈등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였다.

셋째,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인원수의 제한으로 먼저 이름표를 걸어야만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자유’선택 놀이가 아닌 ‘선착순’선택 놀이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넷째, 인원수의 제한은 유아들이 자발적 놀이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어 유아의 놀이 자율성을 저해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영역에 제한 인원이 모두 차서 자신이 놀이할 기회를 박탈당할 때 좌절감을 느꼈다. 놀이하고 싶은 영역에 인원이 모두 차서 배회하거나 영역 근처에서 기다리는 현상은 선행연구(이소윤, 2015)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자유선택활동 시 영역별 인원수 제한규칙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과 규칙의 역기능은 교사로 하여금 규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반성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교사는 인원수 제한규칙을 과감히 해제하였고 규칙의 해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아의 자율성이 증진되었다. 인원수 제한규칙이 사라지자 유아들은 교사에게 공간 활용에 대한 자유를 요청하였고 이를 교사가 수용하자 자율적으로 교실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자발적인 놀이 실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배회하는 유아들이 감소했으며 계획에 대한 조절 능력이 발휘되었고 놀이의 다양성과 몰입하는 시간이 늘었다. 또한 유아들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유아 스스로 친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갈등을 조절하였다.

둘째,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법이 변화되었다. 인원수 제한규칙이 있었을 때 교사는 규칙의 유지를 위해 유아들에게 규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제한 인원이 차서 선택한 놀이 실현이 어려운 유아들에게는 다른 놀이를 권유하고, 경쟁하는 유아들을 중재하며 감시와 통제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었다. 하지만 인원수 제한규칙이 해제되면서 배회하는 유아가 감소하고 유아 간 갈등이 감소하여 교사는 유아 놀이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였다. 교사는 감시자, 통제자 역할에서 놀이 참여자, 지원자, 확장자의 역할로 주된 역할의 변화가 생겼다.

2. 제언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현실을 창조해 내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법도 학습한다(Elkind, 2011). 유아에게 놀이는 삶을 위한 기본 권리이며, 성인의 역할은 유아가 놀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Lester & Russell, 2010).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유아교육 현장과 후속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많은 유아교사들이 적용하는 규칙을 주제로 하였다. 자유선택활동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편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규칙을 적용하였으나 유아들 간의 갈등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현재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규칙들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학급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고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규칙을 해제 또는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흥미영역 별 인원수 제한규칙이 유아의 개별적인 흥미와 욕구의 제한, 도덕성 발달과 자율성, 사회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때 원활한 학급운영 차원보다는 유아의 입장에서 욕구와 흥미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아의 놀이 욕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의 운영은 유아 놀이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 선행연구(윤향미, 장영희, 2013)에서도 제언하였듯이, 규칙은 교사뿐만 아니라 반 구성원인 유아도 함께 참여하여 토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처음부터 유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며 유아가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해 언급하여 규칙의 의미와 필요성을 유아 스스로 깨우치며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규칙을 적용하였을 때 유아는 규칙을 더욱 준수할 것이다. 유아 교사는 바람직한 규칙 적용이 어떤 규칙인가 아닌 규칙을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었는가와 관련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질적 연구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본 연구가 J시의 사립유치원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의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향림(2012). 구성주의 교실에서 진정한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유아들의 노력. **유아교육학논집**, 16(1), 401-424.
- 권미나, 엄정애(2011). 실내의 자유놀이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 놀이집단 가입행동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2(2), 137-156.
- 김경철, 이병비(2001). 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난 5세아의 혼잣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5(3), 123-141.
- 김미선(2012). 자유선택활동 시 흥미영역 선택 이름표 사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생각과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9). 토의를 통한 규칙 조정하기 활동이 유아의 규칙 준수와 교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홍용희(2004). 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교사 역할 및 역할수행의 갈등. **교육인류학연구**, 7(2), 139-171.
- 나은숙(2005). 유아에게 자유선택활동이 지니는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은숙, 양옥승(2007).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난 유아들의 흥미. **유아교육연구**, 27(1), 281-304.
- 나은숙, 한수정(2011). 유아가 자유선택활동에 몰입하는 맥락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1), 61-78.
- 민혜원(2001). 규칙 위반 시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교사와 유아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13). 흥미 영역의 놀이 규칙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전략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채익(2005). 교육에서 자유의 의미. **교육발전 연구**, 22(1), 5-24.
- 배경화(2011). 유아교육기관의 자유선택활동시간 운영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희, 안선희(2001).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5(1), 71-77.
- 서현아, 권말순(2007).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놀이개입 유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227-248.
- 양옥승(2003). 자유선택활동에서 유아의 선택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3(3), 131-152.
- 양옥승, 이정란, 나은숙(2002). 유아의 관점에서 본 자유놀이. **열린유아교육연구**, 7(1), 143-165.
- 엄나은, 서동미(2015). 자유선택활동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01-128.
- 엄정애(2009). **영유아 놀이와 교육**. 경기도: 교문사.
- 원계선, 박서연, 장수지, 정유나, 윤미영, 이지연, 이하나, 한아녕(2013). 어린이집 자유놀이의 제한 규칙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7(2), 46-62.
- 위수경(2007). 유아의 놀이규칙 준수를 위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의 전략과 상호작용 패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현(2004). 실내의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영, 이정수(2008).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및 운영실태. **대한아동복지학회**, 6(2), 19-41.
- 윤향미, 장영희(2013). 자유선택활동 운영에서의 유아교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 탐구. **유아교육연구**, 33(4), 267-289.
- 이소윤(2015).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일어나는 놀이규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혜원(2015).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인식 탐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1), 90-112.
- 추수진(2008).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에서의 놀이의 자유 : 자유의 제한과 자유의 실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라, 이연선(2006). 생태유아교육기관과 일반유아교육기관의 자유놀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5(1), 1-23.
- Butler, C.(2012). *Child rights : the movement, international law, and opposition*. Purdue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질적 연구방법론**(조홍식, 정선숙,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 학지사(원판 2007).
- Elkind, D.(2011). *The power of play, 놀이의 힘*(이주혜 옮김). 서울: 한스미디어(원판 2007).
- Landreth, G. L.(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Muncie, IN: Accelerated Development Press.

Lester, S., & Russell, W.(2010). *Children's right to play :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The Hague, the Netherland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eature of children's play according to a player number restriction rule in the free choice activit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management of free choice activit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a homeroom teacher, professor as a co-researcher and 25 4-year-old children of a private kindergart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observation, children interview and reflective journal of the teacher from July to October in 2014.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hildren were stressed out with using name cards for presenting center selection, showed overcompetitive behaviors, and frequently violated the rules.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restriction rule had some dysfunctions, which were interferences of moral development,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elf-regulation development, preventing safety-accident and free choice behavior. The researcher as a teacher abandoned the player number restriction rule, and observed the children's play. As a result,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ies on physical space, play and conflicts improved and the teacher changed her strategy when managing free cho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s of various restriction rules and appropriate methods for applying the rules in free choice activities were further discussed.

■ **Key words** free choice activities, restriction rule, abandoned the restriction rule, dysfunction

논문투고 15.12.11
수정원고접수 16.02.01
최종게재결정 16.02.04